



휴가 기간, 시원한 계곡이나 산사에서 읽는 한권의 불서는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 된다. 사진=박재민 기자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떠나지만 복작이는 인파와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지 일주일 여름휴가. 이번 휴가길에는 불서 한 권을 꼭 챙겨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서와 함께 하는 휴가만큼 일한 재충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휴가지에서 읽어볼 만한 불서를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 집계 '2006 상반기 베스트 불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불서 한권 챙겨가면 휴가길이 즐겁다

산사의 향기를 찾아

울 상반기,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것이 바로 단기출가와 템플스테이다.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산사에서 마음의 휴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가》와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은 각각 단기출가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출가》는 지난해 말 처음 실시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월정사 단기출가를 TV 다큐멘터리로 만든 윤영관 프로듀서의 제작기와 단기출가생 이민우씨(카피라이터)의 체험기를 담은 책이다. 한 달간의 출가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어 단기출가 프로그램 참가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은 여행전문가 유희상씨가 전국 21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특성과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서로,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발우공양 순서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아직 휴가지를 결정하지 못한 독자라면, 풍부한 사진으로 산사의 향기를 전해주는 여행서를 펼쳐보자.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암자나 산사, 혹은 폐사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조용현의 사찰기행》과 소설가 정준주의 《나를 찾는 암자여행》은 10여년이 넘게 산사와 암자를 순례해 온 지은이들이 들려주는 산사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장지현의 잊혀진 기암 탐험》은 장지현 시인이 4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35곳의 폐사지를 찾아다니는 기록으로, 건물은 없어지고 절터만 남은 곳에서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떠는 '땀만'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마음으로 먹는 밥》에는 호산 스님(서울 달마사 주지)이 풀어 놓는 '밥'에 얽힌 추억이, 운서주공 스님의 수필 <죽향수필>을 번역한 <산색>에는 깨달음을 향한 서릿발 같은 글귀가 담겨 있어 더위를 식혀준다.

경전을 알기 쉽게

휴가 기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차게 배우고 싶다면 경전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들을 골라 보자.

《인도 간 붓다》는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이자 불가촉천민의 해방자로 추종 받는 암베드카르가 쓴 부처님 일대기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까지 지냈으며, 인간 평등과 신분제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 인간 해방의 길을 불교에서 찾았던 암베드카르는 인간 해방과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큰 틀로 부처님 가르침을 재해석했다. 불교 입문서로는 <유쾌하게 읽는 불교>가 눈에 띈다. 조계종 포교원 교명석 포교연구과장이 쓴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입문서를 지향하고 있다. 딱딱한 교리 해설이나 피상적인 설명 대신 생활 속의 체험이 묻어나는 '일상의 언어'로 초심자들을 불교의 세계로 안내한다.

《인제목 강설》은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낸 대강백 무비 스님이 30여 년간에 걸쳐 완성한 <인제목> 강설이다. 눈 어두운 불자들을 위해 경전을 한 구절씩 해석하고 그 뜻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동국대 교수 계한 스님의 <대승불교의 세계>와 유마선원 이제일 원장의 <원각경>,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선으로 읽는 신심명>, 홍의대 김원수 교수의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 등도 올 상반기 출판시장을 풍요롭게 만든 교리 해설서들이다.

수행의 등불

2005년 상반기, 불교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종단 차원에서 발간한 수행서일 것이다. 전국 선원장 스님들이 2년 만에 걸쳐 집필한 <간화선>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펴낸 <수행법 연구>는 체계적인 수행 방법에 목말라했던 불자들에게 한여름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지난 5월 출간된 <간화선>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정화)과 전국선원수좌회 편찬위원회(위원장 혜국)가 엮은 것으로, 종단 차원에서 발간된 최초의 간화선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발간 한 달 만에 1만3천여 권이 판매됐을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가 펴낸 <수행법 연구>는 그동안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제수행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엄벌과 주력 길 걷기 사경 위빠사나 등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들을 정리하고 있다. 무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자신이 그동안 해 왔거나 관심을 두었던 수행법을 중심으로 읽어간다면 실제 수행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내 안에서 찾는 붓다>에서 '지비명상'의 길을, 동화사 강주 지은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지비수관'을 소개해 집에서든 차근차근 수행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휴가지에서 읽을만한 불서 30선



수필 기행서

제목	편·저자	출판사
공부도 놀이도 산사는 아이로 키워라	서광 스님	북폴리오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랜덤하우스중앙
마음으로 먹는 밥	호산 스님	북로드
산색	연관 스님	호미
소통 좁는 아이들	최시선	아름다운인연
나를 찾는 암자여행	정찬주	마음항기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전재근	종이겨울
장지현의 잊혀진 기암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조용현의 사찰기행	조용현	이가서
맨발의 붓다	정운 스님	무우수
출가	윤영관 외	동아시아

교리 해설서

제목	편·저자	출판사
대승불교의 세계	계한 스님	운주사
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	효림 스님	비보새
부모은중경	길은 스님	지영사
선으로 읽는 신심명	김태완	침묵의향기
유쾌하게 읽는 불교	교명석	동승동
원각경	이제일	여시아문
인도 간 붓다	암베드카르	청미래
인제목강설	무비 스님	불광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수행서

제목	편·저자	출판사
간화선	편집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욱 외	더북컴퍼니
내 안에서 찾는 붓다	마가 스님	무한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효림
마음 밭을 가꾸는 불자	보성 스님	효림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교재
수행법 연구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정찬주	열림원
침선일기	김홍근	교양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지은 스님	법공양

전등록 전 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문재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마보묘인 전등록>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체신(箕城扶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사서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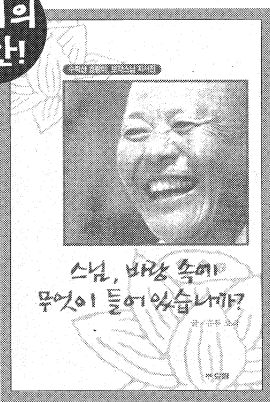


사진=박재민 기자

수락산 호랑이, 보각스님 자서전

스님, 바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화제의 신간!



휴봉 보각 지음 / 신국판 / 값 10,000원

이 책에는 반세기를 승려로 살아오면서 경험해야 했던 보람과 난관, 소신과 좌절, 그리고 갖은 어려움 속에서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한 노비구니의 삶의 편린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특별한 기교는 없어도, 잔잔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적은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수행담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오늘의 세태를 후일에 증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자신이 신세진 모든 이에게 허리를 굽듯이 굽혀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 월운스님 추천사 중

정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수선한 시절에 출가해 강원의 학인으로 선방의 남자로 지내던 시절 이야기들, 은사 상인스님과 효봉·동산·경봉·법희·운허·성철스님 등 당대를 호령했던 선지식들과의 인연담, 폐허가 된 수락산 석림사를 30년에 걸쳐 중창한 눈물겨운 스토리,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과 노인들 20여 명을 보살피며 자비를 실천하는 이야기며, 여성의 입장에서 불교계의 오랜 관습인 남녀차별을 질타하는 일침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 법보신문

◆ 8월 5일(음력 7월 1일) 오전 10시에 수락산 석림사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전화 031-873-6516)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시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백중기도·천도의 법보사용으로 매우 좋은 책

● 영가천도

우륵스님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독경·사경의 천도, 49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궁금증을 우륵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 지장신앙·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지장보살 본원경 (부록-지장보살예참문)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그리고 지장염불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성큰스님 법문집”

마음발을 가꾸는 불자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말라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 천도제 및 백중 기도법을 비롯하여
· 기도성취의 기본원리와 참회법
·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불자의 길
· 내가 나를 다듬는 방법
· 주인 노릇하며 사는 법
·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
· 생활 속의 불교수행법
· 업장을 녹이는 공부 등에 대해
큰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성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